"용성 스님 죽음관, '12연기 · 대승' 기반"

문현공 연구원, 전자불전 18집 특집논문서

독립운동가이자 근대불교의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사진〉은 〈능엄경〉,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대각원류〉, 〈귀원정종〉 등 다양한 저서를 남겼다. 이중 1936년 〈임종결〉은 용성 스님 특유의 죽음관이 담긴 한글 저서이자 사상서이다. 〈임종결〉에 담긴 용성 스님의 죽음관을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문현공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전자불전〉 18집 특집논문 '용성 선사의 죽음관 연구'에서 용성 스님의 저술 〈임종결〉을 연구 · 분석했다.

제자가 용성 스님에게 죽음의 본체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는 〈임종결〉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문답이 아니라 △본성의 본체 △본체의 작용에 근거한 생사 △평상시 죽음을 위한 대비 △임종시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 △임종 이후 정토왕생 방법 △삼매에 드는 방법 △악연의 인과를 소멸시키는 방법 △영혼에 대한 언급 등의 주제들이 다뤄진다.

이를 통해 용성 스님은 평상 시 수행을 닦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강조하고, 수행의 습기(習氣)에 따라 임종시 왕생하거나 해탈한다고 했다. 임종시 유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사망 직후에는 고인의 식(識)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 고인이 있는 곳을 편안히 유지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용성 스님 '임종결' 연구 · 분석
기신론 · 유식 · 정토 등 종합 기술
평소 수행이 生死 분별을 끊어

"스님 사상 핵심 담긴 사상서"
현대 죽음교육에도 활용 가능

문 연구원은 "용성 스님의 임종 시 태도의 기본 입장은 평소 수행이 중심에 있다"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데에 대한 용성 스님의 관점 역시 생사 근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수행적인 삶, 죽음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성 스님의 사상은 현대 죽음학 및 죽음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죽음에의 대비 교육'의 측면에도 깊이 있는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불교의 궁극적인 측면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연구원은 용성 스님의 〈임종결〉에 담긴 '생사 극복 방법'에도 주목했다. 용성 스님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만드는 근원심(根源心)의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봤으며, 이를 〈대승기신론〉의 '구상차제(九相次第)'와 〈육조단경〉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문 연구원은 "삶과 죽음을 만들어내는 분별심, 그 분별심을 만들어내는 무명을 제거해 생사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관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며 더 중요한 것은 생사를 일으키는 무명의 소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성 스님의 죽음관은 12연기의 죽음관과 대승불교의 생사관에 맞닿아 있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측면에서 죽음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면서 "결국 〈임종결〉은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 간화선, 염불선, 유식사상에 대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상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불전〉 18집에는 '백용성의 사상과 계승'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으며,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의 '용성진종의 승단개혁운동' △한상길(동국대)의 '백용성 대종사 자료 조사기' △김광식(동국대)의 '금정총림 설립의 역사와 범어사의 정체성'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보물 지정

도림사 아미타설법도 · 몽산화상법어약록도

18세기 경북지역 화승들이 조성한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등 불교문화재가 잇달아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보물 제1933호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1739년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등 경북 지역서 활동하던 화승들이 경주 거동사 오주암에서 제작해 불영사에 봉안했다는 화기가 남아 있으며,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및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각 회상(會上)을 나란히 배열한 안정된 화면 구성과 격조 있는 인물 묘사, 세련되고 유려한 필치, 밝고 온화한 색감을 통해 높은 품격을 보여준다.

특히, 지물을 든 천장보살과 지장보살 아래로 협시가 보살이 아닌 무장형(武將形)으로 등장하고 있어 팔공산 지역과 구미, 상주 일원의 경북 중북부 지역의 결합된 화풍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보물 제1934호로 지정됐다.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도림사 보광전의 후불탱화로 1730년 철매(哲梅)의 증명 아래 수화원(首畵員) 승려인 채인(彩仁), 진행(眞行), 즉심(卽心), 각천(覺天), 책활(策活) 등이 조성했다. 18세기 전반기 화풍과 화사간의 교류를 통한 화맥(畵脈)의 전승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물 제1933호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보물 제767-4호로 지정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는 중국 원나라의 고승 몽산화상 덕이(1231~?)의 법어를 간략하게 줄인 것으로 조선 초기 신미 스님이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이는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머지않은 시기에 간행된 도서라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조선전기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신성민 기자

세계유산 가치 담은 '부여학 6호' 나와

수리 · 복원 18편 논문 수록



세계유산의 수리복원에 대한 논문들이 담긴 〈부여학〉 6호가 발간됐다.

〈부여학〉 6호에는 '세계유산, 수리복원, 재생 그리고 부여'라는 주제로 18편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부여 밖에서 본 세계유산을 주제로 국내외 세계유산, 수리복원, 재생과 관련한 역사이론과 사례가 포함돼 있다.

18편의 논문은 △비평적 시각에서 세계유산 △세계유산의 역할 △건축도시의 수리복원 △동아시아의 수리복원과 재생 △부여와 세계유산 재생 중 하나의 세부주제로 저술됐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백제 고도 부여의 세계유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철학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고도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차문화硏, 사단법인으로 새출발

3월 4일 법인 창립 총회
박동춘 소장 이사장 선임

茶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연구 · 교육 · 전승 사업 실시
"차 우수성 전세계와 공유"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3월 4일 사단법인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창립총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차문화 전문 연구기관인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가 사단법인으로 외연을 넓히고 새롭게 출발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발기인들과 법인 창립에 동의하는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인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법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일괄 동의했다. 또한 초대이사장에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을 선임했다. 박동춘 이사장은 연구소장을 겸임한다.

법인 이사로는 김호석 수묵화가, 변영섭 고려대 명예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홍윤선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서경 목포대 연구교수, 이학종 미디어붓다 대표, 이만훈 前 중앙일보 국장, 김옥경 새봄어린이집 원장, 김미자 전북대 철학과 박사과정 등이 참여한다. 감사에는 김현옥 前 우리은행 지점장, 신혜현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동춘 초대 이사장은 선임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응송 스님에게 차를 접하고 배운지 올해로 37년이 됐고, 연구소를 2001년 개원해 법인화하는 데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면서 "연구소를 사단법인화 하는 것은 차문화 연구가 몇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이를 세상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법인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법인화를 통해 차 전문 연구소로서 전문 연구,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한국 차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이 된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차문화 · 산업 콘텐츠 개발 △야생차밭 보존 관리 사업 △한국 전통 제다 교육 사업 △한국 차문화 · 산업의 기초 자료조사 및 학술 연구 △한 · 중 · 일 차 역사 · 문화 강의 △동아시아 차문화 · 산업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동아시아 차문화 · 산업 전문서적 출간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한국 전통 제다 교육 및 제다 전문인 양성을 통해 농춘 유휴 인력을 활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음악 · 미술 등 예술 분야와 연계해 새로운 차 문화 · 산업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화 장엄, 학술적 조명 나선다

지화 보존회, 3월 24일 학술세미나

불교의례의 위엄을 더하는 장엄구(莊嚴具)인 종이꽃 '지화'(紙花)의 역사와 가치를 학술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지화장엄보존회(회장 정명)는 3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지화 장엄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김태연 대구대 명예교수의 '지화장엄의 세계와 가치' 주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양종승(무속박물관 관장)의 '불교와 무속의 전통지화 비교 고찰', 김성순(서울대 종교문화연구소)의 '동아시아 삼국의 전통지화 비교 고찰', 정성준(동국대 티벳장경연구소)의 '불교지화에 나타난 밀교의 영향 - 오방색의 중심이 흰색이란 점을 포함해' 등이 주제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진관 스님(무진장연구원장), 김용덕(한양대 교수), 이은종 씨 등이 참여한다. (010)5390-0108

신성민 기자

보조 계승자들 사상 · 수행을 말하다

보조사상연구원, 17일 월례학술대회

보조 지눌 스님의 법을 계승한 수행자들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3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 2층 문화강당서 '보조 지눌과 계승자들의 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제118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혜정(원광대)의 '지눌의 원돈신해문과 마음수행' △김성순(서울대)의 '〈질의록(質疑錄)〉에 나타난 금명보정(錦溟寶鼎)의 근대기 불교인식' △문광 스님(한국학중앙연구원)의 '탄허의 보조계승과 그 확장' 등이 주제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김천학(동국대), 김용태(동국대), 임상희(동국대)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11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